

## 사하라의 샘물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 차드, 카메룬 이야기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차드'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문을 열어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풀리지 않는 경제로 방학 이후 시간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는 국지전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드를 위해 끊임 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메룬은 2018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9년에는 아프리카 컵(축구)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관, 경찰과 군인, 교통국 여러 부분에서 돈을 갈취?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초 부터 공항세가 2번이나 올랐고, 검문이 심해지고 공공연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정부가 아닌 개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2018년 대선(10월예정)을 통해 카메룬이 바뀌는 시점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한 남부 및 북서부 지역의 영어권에서는 이번 대선까지 기다려보고, 대선 이후 영어권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없다면 독립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영어권 지역 협상이 평화 가운데 진행되도록,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권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식



세례자들과 함께



재직 세미나 후 재직들과

### 사역 이야기

#### \*에포아메키 차드 난민교회

- 세례식

지난 4월 1일 에포아메키 교회가 세워진 이래 첫 세례식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교회 자체로 하는 첫 세례식이라 저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세례식이었고,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례통이 없어서 비록 작은 놀이용 튜뷰를 사서 진행한 세례식이었지만 첫 자체 세례식이라는 감사함과 뿌듯함이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들이 세례자들의 후견인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축하하고 집까지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셨기에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례식은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마련된 세례(침례)통에서 세례식이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8년도 교회 주제와 목표는 "참 예배자"입니다.

1월 첫 주부터 지난 주일 까지 5개월 동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막의 모형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설교하였습니다.

또한 찬양팀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를 진행하며 조금씩이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배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까지 평균 10명이하로 참석하던 수요기도회도 30-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7월에 암 정기검진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동안 세워놓은 것들이 이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예포아메키 교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대지구입**과 **건축**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재정으로는 아직 땅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예포아메키 교회의 대지구입(추가 2300만원-약100평)과 교회 건축(3-4000만원)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연결되어 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진우네 이야기

지난 기도 편지에서 나누었듯이 아내의 몸이 체온 조절(체온조절장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과에 진료를 받고 예약을 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원인을 잘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상선 암 수술 후 1년여 만에 정기검진을 받게 됩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었었는데 선교지로 돌아와야 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허리 치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잘 치료 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연우, 진우는 내일이면 이 곳에서 한 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진우의 첫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연우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기간 잘 치료되고, 회복 될 수 있도록, 두고 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을 전하며~~

안수웅, 안의숙, 연우, 진우 가정 드립니다.

## 기도제목

1.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위해
2. 차드와 카메룬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
3. 예포아메키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 되도록
4. 차드 난민교회 대지 구입과 성전 건축을 위해
5. 한국방문기간 사역지에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6.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치료와 회복)
7.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한국연락처 : 010-9152-1526 (안수웅)

010-9027-1526 (안의숙)

전자 메일: pray4tchad@maill.com

카톡아이디 : aswbear

주소: BP 6402 Yaounde Cameroun W. Africa



♥ 차드와 카메룬에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세요 ~^^\*

국민은행 839-25-0006-901 농협 366-17-011344 지로 7518595  
우체국 012872-01-001145 예금주:(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첫 송금시 선고국 02)3459-1031-4로 안수웅 선고사 후원임을 꼭 알려주세요